

종교폭력 이면의 정치와 경제 문제에 대한 소고*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종교폭력
- III. 종교폭력의 경제적 요인
- IV. 종교폭력의 정치적 요인
- V. 결론: 종교폭력에 대한 정치 신학적 대안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49.12>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381).

** 주저자, peaceground@mtu.ac.kr

• ABSTRACT •

A Study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Issues behind Religious Violence

Prof., Yoo, Kyoung-dong(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Religion, the symbol of peace, becomes a cause for conflicts around the world. Although the analysis of reasons when religious activities expressed according to religious convictions are related to violence are diverse, the researcher will attempt to study the 'religious violence' associated with the society's 'political and economical components' in this paper. In the western globalization trend, resistance against the economic system of capitalism is the primary economic factor for religious violence, and the collusion of religious and political powers during the process of secularization can become the political cause for religious violence. The researcher will examine the definition of religious violence, Western scholars' theories on how religious violence becomes associated with religious convictions,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and make a brief proposal regarding the task of the community for peace in this paper. There are several papers on 'religious violence' in Korean Christian academia. Still, many are limited to peace concepts particular to specific religions, so the research on the compositive social factors such as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is expected to promote further understanding of religious violence. Since this paper relied on Western English-speaking scholars' analysis, the limit to document analysis exists. However, this paper may assist as preliminary research,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religious conflicts associated with Korean society's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Key words: Religious Violence, Religious Military, Secularization, Religious Power, Peace Ethics

I. 들어가는 말

종교가 폭력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를 펼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전쟁과 평화의 윤리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각 종교 전통에 입각해서 볼 때... 현대에 가장 풀기 어려운 갈등 대부분을 유발하고 정당화하는 데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은 전 세계적인 윤리적, 정치적 논쟁의 주제이다.¹⁾

종교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력과 연관되어 세계 곳곳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한편, 국내에서는 종교폭력의 문제가 현상적으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긴장의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교폭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종교폭력의 ‘정의(definition)’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종교적 신념과 연관된 정치 경제적 요소들이 어떻게 종교폭력과 연관이 되는지 서구학자들의 이론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결론으로 평화를 위한 공동체 윤리의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언을 하도록 하겠다. 필자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종교폭력과 연관된 경제적 요인은 ‘물신’과 ‘자본주의’ 그리고 ‘세계화’의 문제이며, 정치적 요인으로 ‘종교의 정치 권력화’, ‘박탈감에 따른 폭력’, ‘민족주의’, ‘종교의 군사화’, ‘근본주의’ 그리고 ‘탈식민지의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이다.

국내 학계에 ‘종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수 논문이 있으나 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종교별 ‘평화개념’에 제한되어 있어서 보다 거시적인 정치 경제

1) Linda Hogan, "Introduction: Between Legitimation and Refusal: Jewish, Christian, and Islamic Responses to Political Violence," Linda Hogan and Dylan L. Lehrke, eds., *Religion and The Politics of Peace and Conflict* (Eugene, Oregon: Pickwick, 2009), x.

와 같은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²⁾ 그러므로 본 연구가 종교폭력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의 한계는 주로 영어권 서구학자들의 종교폭력에 대한 분석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문헌의 한계가 있다.³⁾ 그러나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적 요인과 연관된 종교 갈등의 소지를 염두에 둘 때 예비적인 연구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종교폭력

종교와 폭력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 종교폭력을 정당화하는 주요 ‘종교적 가치체계’와 연관된 요인, 종교의 내적 일치를 통한 ‘배타적인 집단화’의 요소, 그리고 물리적 폭력을 넘어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하는 ‘세계화’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종교적 신념이 종교폭력의 정당성과 도덕적 권위를 부여한다. 마크 위르겐스마이어(Mark Juergensmeyer)에 따르면, 종교가 평화에 이바지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종교가 폭력이나 테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9.11 테러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종교적 테러 행위들의 이면에 작동하는 주요 요인은 종교적 테러

2) DBpia를 통하여 주제어 ‘종교와 신학’ 분야에서 ‘종교/폭력’을 검색하였을 때 총 159건이 검색되는데, 주 내용은 종교의 상징성에 대한 분석이 있으며 기독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 등 종교별 평화 사상에 대한 연구물이 있고, 사상으로는 르네 지라르, 간디, 함석헌의 평화 사상 연구 등 소수의 논문이 있다.

URL=[http://www.dbpia.co.kr.proxy.mtu.ac.kr:8080/search/topSearch?startCount=0&collection=ALL&range=A&searchField=ALL&sort=RANK&query\(최](http://www.dbpia.co.kr.proxy.mtu.ac.kr:8080/search/topSearch?startCount=0&collection=ALL&range=A&searchField=ALL&sort=RANK&query(최종접속: 2020년 10월 25일))

3) 참고로 필자는 이론 전개에 있어서 ‘종교폭력’이나 ‘테러’의 개념을 큰 틀에서 구분 없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함을 밝히며 원전의 의미를 ‘종교폭력’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였음을 밝힌다.

용의자나 단체들이 내세우는 일종의 선과 악 사이의 영적 전쟁인 ‘우주적 전쟁(cosmic war)’과 같은 것으로 비친다고 설명한다.⁴⁾ 위르겐스마이어는 폭력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 또는 정당성은 그 자체를 ‘성전(聖戰)’으로 재가하는 종교적 신념과 관계가 있으며, 종교폭력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우주적 전쟁이라는 메타포를 통하여 물리적 폭력을 영적 전쟁으로 승화하여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속하게 되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소위 정치의 종교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분석한다.⁵⁾

위르겐스마이어의 이론을 정리하여 보면, 종교폭력은 세 가지 정도의 합리적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간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상 신이 지정한 종말론적 시간과 장소에서의 영적인 보상이 있어서 사회로부터 그 어떤 실제적인 타협이나 지지 또는 논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그 어떤 지구상의 법적, 도덕적, 정치적 질서도 폭력을 지지해주는 신적 권위를 넘어설 수 없으며; 둘째, 이러한 관점은 곧 폭력을 영적인 행위로 만들어 종교 그 자체가 종교적 폭력을 지지하는 근거라는 순환적 논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테러의 정당화를 통하여 종교적 권력을 강화하고 종교적 행동을 촉구하는 강력한 정치적 집단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셋째, 정치적 폭력이나 테러를 정당화하는 권위나 근거가 종교집단

4) Mark Juergensmeyer, “Religious War, Terrorism, and Peace,” Gerrie Ter Haar and Yoshio Tsuruoka eds., *Religion and Society: An Agenda for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Studies in Religion and Society Vol. 5* (Leiden and Boston, Brill, 2007),

7. ‘테러에 대한 전면적 전쟁’이란 관점에서 접근하는 종교적 테러에 대한 논리는 서구화와 세계화의 흐름과 맞물려 무슬림의 지하드(jihad)나 이스라엘의 유대주의 단체들을 포함하여 과거 미국 부시 행정부의 논리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위르겐스마이어는 지적한다. 같은 책, 7.

5) 위의 책, 8-9. 종교폭력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물론 세계 경제와 정치적 구조를 바꾸려는 열망을 가지고 폭력을 정당화하게 된다. 같은 책, 8. 위르겐스마이어는 다음의 저서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Mark Juergensmeyer, *Terror in the Mind of God: The Global Rise of Religious Violence*, 3rd ed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의 권력에 있지만, 종교적 폭력에 참여하는 개인은 그러한 행위가 자신의 구원과 존엄성에 관련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특히 극단적인 종교적 폭력이나 테러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종교적인 우주 전쟁에 참여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그 어떤 테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위르겐스май어는 설명한다.⁶⁾

위와 같은 맥락에서 도미닉 알카모네(Dominic Arcamone)는 마크 위르겐스май어의 이론을 분석하면서 종교와 테러리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종교는 테러리즘에 힘을 실어주었고, 테러리즘 또한 종교에 힘을 실어주었다.”라고 지적하는데 그 주요 원인은 테러의 행위를 신의 명령이라고 여긴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⁷⁾ 알카모네는 위르겐스май어가 “종교적으로 동기화된 테러와 정치적으로 동기화되고 정당화되는 테러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한 것을 되새기면서, 특정한 폭력적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신의 명령이라고 인정된다면 대부분 종교인은 이를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재차 위르겐스май어를 인용한다.⁸⁾ 알카모네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폭력을 지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선과 악, 진실과 거짓, 구원과 지옥 사이의 영적인 갈등으로 폭력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으며, 그들은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 내에서 이러한 생각을 구축할 수 있다. 종교는 사회적 저항이나 항의의 이념을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종교적 주체에게 있어서 민중이나 국가는 모두 그들이 민중의 정체성이나 자존심을 공격할 때에 특별하게 저항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며, 이는 소외와 주변화,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⁹⁾

6) 위의 책, 9-10.

7) Dominic Arcamone, *Religion and Violence: A Dialectical Engagement through the insights of Bernard Lonergan* (Eugene, Oregon: Pickwick, 2015), 38.

8) 위의 책, 38. 재인용, “Juergensmeyer, Terror, 148-49, 221.”

둘째, 종교 신념에 따른 다양한 종교 내적 가치관의 차이로 생기는 배타성이 종교폭력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브루스 링컨(Bruce Lincoln)은 종교적으로 정당화되는 폭력이나 테러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 종교에 대한 정의(defini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서, 기본적으로 종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종교 담론’, ‘종교 활동’, ‘종교 공동체’, 그리고 ‘종교 기관’으로 보며, 각 요소 간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종교성이 구성된다고 설명한다.¹⁰⁾ 링컨은 종교적 테러가 정당화되는 것은 주로 특정 종교의 전체성 또는 일치성을 과도하게 강조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종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이 강조되는지는 철저하게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요소를 통해 종교 간의 차이점들이 발생하고 다양한 교파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종교폭력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¹¹⁾

모니크 스킨드모어(Monique Skidmore)도 종교와 폭력이 얽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종교는... 일상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이해하고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개념적, 도덕적 틀[로서 기능한다.] 일상의 삶 전체를 통합하는 요소로서, 종교는 성(gender), 인종, 계급 차이 등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등한 사회적, 지리적 구분을 강화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될 수도 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 센터에 대한 테러와 다른 전쟁 수준의 테러들이 보여주는 비극에서 잘 나타나듯이, 종교적 교리의 면면이 고통을 유발하고

9) 위의 책, 38-39. 재인용, “Juergensmeyer, Terror, 171-74.”

10) Bruce Lincoln, *Holy Terrors: Thinking about Religion after September 1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7-8. 브루스 링컨은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에서 종교 담론과 종교 활동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고, 종교 공동체와 기관 또한 가깝다고 부연한다.

11) 위의 책, 52.

살인을 저지르는 가장 극악한 행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갈등이 심화 되는 시기에 종교적 교리와 행위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요즘 나타나는 대다수의 갈등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이다.¹²⁾

셋째, 종교폭력은 물리적 상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되며 ‘세계화’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찰스 셀렌굿은 현재 다양하게 벌어지는 종교폭력은 ‘세계화’의 맥락에서 벌어지며 특정한 감정이나 사상 등을 공유한 사람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하나의 클랜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불만이나 감정을 종교적 테러리즘을 통하여 표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서구권에서 종교 테러리즘의 원인 제공자를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종교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일종의 허구적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사실상 모든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또는 종교를 대신해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태’라고 설명한다.¹³⁾

지금까지 필자는 종교폭력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와 그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제 다음에서 차례로 종교폭력과 연관된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요인에 대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종교와 폭력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폭력적 행위를 둘러싼 “사회학적, 정치적, 민족지학적, 문학적, 그리고 역사학적”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이해를 통해 종교와 폭력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모

12) Monique Skidmore, "Introduction: Religion and Women in Peace and Conflict Studies," Monique Skidmore and Patricia Lawrence eds., *Women and the Contested State: Religion, Violence, and Agency in South and Southeast Asia*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7), 4. 참고로 스킴드모어는 이와 같은 주장을 위하여 다음의 학자들을 간략하게 인용한다. "Kendall 1985; Mahmood 1999; Mahmood and Brady 1999; Mulder 2001; Ram 1992; Taylor 2004."

13) 위의 책, 81.

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브라이언 페닝턴(Brian K. Pennington)은 강조한다.¹⁴⁾ 로저스 브루베이커(Rogers Brubaker)도 종교적 폭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를 더 넓게, 또한 한쪽으로 덜 치우친 관점에서 보면, 종교적으로 알려진 정치적 갈등의 특징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규정된 소위 ‘청구인(claimant)’을 포함한 많은 분쟁이-정치적 권력, 경제적 자원, 상징적 인식, 또는 문화적 재생산에 대한 분쟁-궁극적으로 다른 문화 또는 인종으로 정의된 청구인들을 포함하는 분쟁과 그 구조와 역학에서 매우 유사함에 집중하게 된다.”¹⁵⁾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다음 장에서 우선 종교폭력의 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자.

III. 종교폭력의 경제적 요인

종교폭력과 연관된 경제적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 ‘자본주의와 연관된 폭력’, ‘빈부의 양극화의 문제와 결부된 폭력’,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계급의 배타성’으로 기인한 폭력 등이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폭력의 경제적 요인으로는 자본주의와 연관된 세계화에 대한 저항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일라이 버만(Eli Berman)은 종교적 폭력의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면서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 등을 포함한 고전적 문헌들을 근거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애덤 스미스는 종교적이어서, 그의 기본적인 자유 경제주의적 관점은 종교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이익을

14) Brian K. Pennington, “Introduction,” Brian K. Pennington ed., *Teaching Religion and Violence* (Oxford and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3.

15) Rogers Brubaker, “Religious Dimensions of Political Conflict and Violence.” *Sociological Theory*, 33(1) (2015), 2, 4.

중시하며, 그러한 욕망은 낙관적 경제주의적 관점을 가지게 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극단적 종교 테러주의자들의 문제를 살펴보면, 종교적 행위 또한 경제적 본성이나 욕구를 그대로 적용하는 인간의 본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접근을 통해 종교폭력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¹⁶⁾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접근이 종교의 기본적인 영성이나 신앙의 문제를 너무 경제적 욕망에 환원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적 약점이 생기는데, 만약 종교인이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에 따라 행동한다면, 과연 모든 종교인이 급진적으로 폭력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한데, 버만은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을 단순히 종교적 테러주의자들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데,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종교적 극단주의는 급진적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메노나이트(the Mennonite) 등도 있기 때문이다.¹⁷⁾ 버만은 종교적 극단주의가 테러리즘이나 폭력과 연관될 때 대부분은 ‘종말론적 보상’ 심리가 크게 작용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종교적 테러나 폭력은 상대에 대한 혐오나 분노가 유일한 동기는 아니며, 극단적 종교성이 집단화될 때, 더 강화된 폭력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집단화는 집단 내적인 결속을 유지하는 동시에 외부집단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간이 된다고 설명한다.¹⁸⁾

16) Eli Berman, *Radical, Religious and Violent: The New Economics of Terrorism*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9), 62-63. 베르트 비테(Bernd Witte) 또한 애덤 스미스의 시장 경제 낙관론이 종교적 관점에서 정립되었음을 지적하며, 스미스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은 경제적 동기를 구성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안정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경제적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제라는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은 종교적으로 정립되었던 개념들이 세속화된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참고) Bernd Witte, "Politics, Economics, and Religion in Global Age: Walter Benjamin's Critique of Violence and Capitalism as Religion," *Symposium: A Quarterly Journal in Modern Literatures*, 65(1) (2011), 7-8.

17) 위의 책, 212.

18) 위의 책, 213.

버만은 자살 폭탄 테러를 예로 들면서 실제로 그 테러의 목표를 종교인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결국 종교인들로 포함되었겠지만, 외적인 동기가 개입되었다고 강조한다.¹⁹⁾ 버만이 지적하는 중요한 점은 종교적 테러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이 종교적 요인과 결부됨으로써 더 강한 정당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며, 종교적 요인과 독립된 경제적 요인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한 아무리 종교적인 동기로 인해 이루어지는 테러라 하더라도 그것이 더 큰 집단이 배후에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제시한다.²⁰⁾

버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현대 종교적 테러는 세계적 수준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세계화를 통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테러 대상이 국내인으로 제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국내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세계화는 테러 집단 간의 국제적 공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정부에 대한 서구 정부 또는 경제 체계에 대한 보다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저항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도 있다고 부연한다.²¹⁾

베른트 비테(Bernd Witte)는 종교적 폭력이 확산하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가 하나의 종교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즉, 기존의 종교가 자본주의라는 돈의 종교로 대체되면서 사회의 지속적인 세속화와 합리화로 인하여 도덕적 가치가 약화되었다고 지적한다.²²⁾ 비테는 ‘돈의 신(Money as God)’이란 자본주의가 마치 종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중세 가톨릭이 ‘기독교 왕국’이라는 이미지를 통

19) 위의 책, 213.

20) 위의 책, 213-214.

21) 위의 책, 238.

22) Bernd Witte, "Politics, Economics, and Religion in Global Age: Walter Benjamin's Critique of Violence and Capitalism as Religion," *Symposium: A Quarterly Journal in Modern Literatures*, 65(1) (2011), 12-13.

하여 사회를 지배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에는 자본주의가 인간과 사회를 통제하기 때문에 종교폭력의 이면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 있다고 주장한다.²³⁾

둘째, 결국 종교폭력이 자본주의와 연관이 될 때, 빈부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으며 이때 크게는 국가 간의 빈부 문제부터 작게는 지역의 갈등으로 번져나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밥 구드자워드(Bob Goudzwaard) 등은 주장하는데, 전 세계적인 부와 빈곤의 문제가 종교적 폭력 또는 테러 문제와 결부되면 각 국가의 대테러 대책 및 안보의 문제로 폭력은 더 심화 되며, '선제공격론(preemptive war)'과 같은 전략은 결국 국내외적인 대량살상을 초래하는 군비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테러주의자들이나 극단주의적 종교집단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여지를 두게 된다고 설명한다.²⁴⁾

21세기에 들어 많은 해방주의 신학자들은 종교적 폭력의 개념을 경제적, 정치적, 인종 및 사회적 체계의 관점에서 재정의해 왔는데, 레베카 토드 피터스(Rebecca Todd Peters)도 세계에서 벌어지는 종교와 연관된 폭력은 제1세계의 특권계층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 이면의 경제적 억압이 제3세계 중심의 종교적 폭력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인 동시에, 그 자체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더 큰 문제는 제1세계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억압의 실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압 자체를 영적인 문제로 승화하려고 함으로

23) 위의 책, 13.

24) Bob Goudzwaard, Mark Vander Vennen, and David Van Heemst, *Hope in Troubled Times: A New Vision for Confronting Global Crisi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7), 21-22. '선제공격론'은 적이 공격해 올 것을 전제하고 먼저 적을 타격하여 전쟁의 능력을 제거하는 전략으로서 일종의 정당 전쟁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적을 타격하기 위하여 적이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무기가 있다고 여론을 만들어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필자 주).

써, 실제로 억압받는 주체들의 고통을 망각하게 된다고 비판한다.²⁵⁾

셋째,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과 빈부 격차의 심화는 더욱더 종교집단의 배타성을 부추기게 되어 폭력은 더 심화하게 된다. 토마스 스트라우바아르(Thomas Straubhaar)는 종교폭력 이면의 경제적 요소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속화와 세계화의 문제와 연결하여 설명한다. 종교적 폭력이 “특정한 경제, 정치, 사회적 조건의 결과”이며, 특히 “종교집단이 종교 구성원들을 조직화하고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효율성의 결과”라고 지적한다.²⁶⁾ 스트라우바아르는 일단 기존의 세속화 이론은 종교적 폭력을 제대로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만약 종교적 폭력의 주체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약자 또는 빈곤 계층이라고 한다면, 경제적 조건이 상승하면 종교적 갈등 또한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경제적 상황이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적 폭력은 더욱 심화하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여전히 빈곤 계층 또는 빈곤 국가와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계속 심화하고 있으며, 세속화 이론처럼 종교성 자체가 사라지는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 탈 세속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²⁷⁾

스트라우바아르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종교성의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시적 관점에서 종교성 또는 종교

25) Rebecca Todd Peters, “Conflict and Solidarity Ethics: Difficult Conversations on Economics, Religion, and Culture,” Laurie Cassidy and Maureen H. O’Connell eds., *Religion, Economics and Culture in Conflict and Conversation* (NY: Orbis Books, 2011), 72-73.

26) Thomas Straubhaar, “An Economic Analysis of Religion and Religious Violence,” *Transatlantic Academy* (June 2015), 1.
URL=<http://www.gmfus.org/file/download>, Straubhaar_EconomicAnalysisReligion_May15.pdf(최종접속: 2020년 10월 25일)

27) 위의 논문, 2. 스트라우바아르는 이러한 배경의 설명으로 지구의 가난한 남반구와 부유한 북반구로 나누어 세속화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론에 관한 별도의 재인용은 생략한다.

자체는 단순히 경제적 유형이나 패턴으로 설명될 수 없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종교집단이 왜 형성되고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서, 종교 단체는 일종의 ‘클럽(club)’ 같이 각 종교 단체 또는 집단은 집단 내부의 유대성을 강화하는 공통 목적 또는 공공선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²⁸⁾ 그러한 목적에 따라 종교 클럽에 속한 종교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면, 개인적 측면에서 한 개인이 종교적 책임이나 영적 동기는 순수히 개인적 수준에서 구성되는 것 같지만, 종교 클럽이라는 집단을 중심으로 보면, 개인의 종교성 또는 종교집단에 대한 책임은 상호 호혜를 기반으로 매우 경제적인 원리가 작동한다고 설명한다.²⁹⁾

스트라우바아르는 종교적 폭력의 경제적 요인은 단순히 부나 교육 수준의 문제로만 환원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종교적 개혁 운동이나 부흥 운동은 소종파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포함되고 주도하는 넓은 형태의 개혁 운동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개혁 운동이 급진화될 때, 급진적인 폭력적 저항의 형태로 테러나 폭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한다.³⁰⁾ 그는 종교폭력이 단순히 낮은 시장 기회의 문제만을 통해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는 좌절이나 수모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이 결부되어 있어서 종교적 폭력의 경제적 요인을 개인적인 수준에서 보면 안 되며, 종교 클럽의 형태와 유형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종교적 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종교집단 사이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발생한다... 그러한 경쟁이 심화될수록, 각 종교 클럽들은 자신의 인지도를 증가라고 각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 클럽이 더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무수한 노력

28) 위의 논문, 2-3.

29) 위의 논문, 3.

30) 위의 논문, 5.

을 하게 만든다.”라고 부연한다.³¹⁾

이러한 종교 클럽의 경제적 경쟁의 결과, 종교 클럽의 조직적 강화는 종교 내의 통제력을 강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 타 종교 클럽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이는 개인 경제적 수준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교 클럽 단위의 조직적 움직임의 결과로서, 급진적 종교집단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클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한 지킬 수 없는 경제적 약속을 제안한다.³²⁾ 그 근거로 개인적 수준의 순수한 경제적 지표를 제시하고, 집단 내 종교적 사람들이 폭력의 주체로서 타 종교에 대한 공격과 폭력을 감행하도록 유도하는데, 외면적으로 종교적 폭력이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억압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당화 이면에는 종교 클럽의 경제적 욕망이 숨어 있다고 스트라우바아르는 설명한다.³³⁾

지금까지 필자는 종교폭력의 경제적 요인들로서 세계화의 이면에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과 경제적 이익 계급의 배타적 특성, 그리고 계급 간 충돌로 이어지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에서 종교폭력과 연관이 되는 ‘정치적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자.

IV. 종교폭력의 정치적 요인

지금까지 필자는 종교폭력의 정의와 경제적 요인 등에 대하여 서구학자들의 이론을 검토하여 보았다. 페닝턴(Brian K. Pennington)은 종교 자체가 권력과 정치와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망각할 경우, 종교적 폭력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모든 종교 전

31) 위의 논문, 5.

32) 위의 논문, 5

33) 위의 논문, 6.

통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각 종교 현실의 맥락 또는 조건들과 결합하여 표현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표현 방식이 폭력과 결부될 경우, 각 종교의 본래의 신학적, 종교적 본질에 많이 훼손되게 된다고 지적한다.³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살펴볼 내용은 종교 폭력과 연관된 정치적 요인으로 크게 여섯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각각 종교의 세속화와 다원화에 따른 ‘종교의 권력화’, ‘정치적 박탈감에 따른 대항으로서의 종교폭력’, ‘종교의 군사화’, ‘민족주의’, ‘근본주의’, 그리고 ‘탈식민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요소 중에서 ‘민족주의’나 ‘근본주의’는 종교폭력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정치적 요인과 결부되어 폭력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종교폭력은 종교가 세속화나 다원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래의 종교적 이상이 사회 안에서 변화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가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국가와의 관계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관점에서 종교폭력을 설명하는 데이비드 마틴(David Martin)은 계몽주의와 결합한 서구 기독교의 세속화 과정은 기독교의 종말론적 희망을 합리적 잠재성으로 대체함으로써, 정치적 유토피아를 구축하거나 자아의 해방을 추구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한다.³⁵⁾ 그러나 마틴은 정치에 대한 종교의 세속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입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종교적 입장을 정당당화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³⁶⁾

존 켈시(John Kelsay)는 종교가 폭력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34) Brian K. Pennington, "Introduction," Brian K. Pennington ed., *Teaching Religion and Violence* (Oxford and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3.

35) David Martin, *The Future of Christianity: Reflections on Violence and Democracy, Religion and Secularization* (Burlington, VA: Ashgate, 2011), 179.

36) 위의 책, 185-186.

매우 특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적으로 평화를 지지하는 종교가 현실적으로 폭력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동인 또는 근거로 작용할 때에는 그것이 매우 정치적인 원인과 결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³⁷⁾ 특히 켈시는 현대 이슬람 극단주의적 움직임에 대해서, 이슬람교의 '다원화'가 그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슬람국가라는 용어는 이슬람교의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서 공적인 질서와 정의의 추구를 하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정치체제가 이슬람교 공동체 내의 정치적 평등이나 경제적 이익 등에 반할 때, 종교는 이러한 현실 정치체제에 대한 반동을 지지하는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³⁸⁾ 즉, 범이슬람 종교 공동체라 하더라도, 각 하위 공동체 내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같은 이슬람교의 도덕적, 종교적 명령이나 의무가 다르게 해석되는데, 이를 켈시는 다원주의의 문제로 정리하며, 각 종교의 궁극적인 '신명론'이 존재하지만,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원리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내재 되어 있어서, 비폭력이나 평화라는 궁극적 원리를 배제하고 폭력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종교 자체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³⁹⁾ 또한, 종교의 다원성을 유발하는 요인은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과 권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며 결국 특정한 정치적 요인이나 문제는 종교 내적인 신명론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고 켈시는 설명한다.⁴⁰⁾

37) John Kelsay, "Why Should You Not Fight?: The Imperative of War in Islam and Christianity," Linda Hogan and Dylan L. Lehrke, eds., *Religion and The Politics of Peace and Conflict* (Eugene, Oregon: Pickwick, 2009), 25-27. 켈시의 이론적 배경에는 기독교의 정당 전쟁 전통과 이슬람교의 지하드에 관한 것이다.

38) 위의 책, 30-31.

39) 위의 책, 51.

40) 위의 책, 51.

둘째, 종교폭력의 원인으로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박탈감’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제프리 로빈스(Jeffrey W. Robbins)는 테러를 단순히 극단적인 정치 형태로 볼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조건이나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사회나 공동체 내의 정치적 제도에 대한 희망이 소실되면, 지배층을 겨냥한 저항 세력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⁴¹⁾ 제프리 로빈스는 종교와 정치와 결부된 폭력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종교적인 동시에 세속적이다. 정치란 종교와 정치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와 종교가 상대적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⁴²⁾

셋째, 종교의 군사화가 종교폭력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스콧 애플비(R. Scott Appleby)는 종교적 폭력의 양상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과 가장 크게 결부되는 문제는 종교의 군대화 또는 ‘군사적 종교’ 개념이라고 지적하는데, 군사적 종교란 물리력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암시하는 개념으로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폭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 종교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41) Jeffrey W. Robbins, “Terror and the Postmodern Condition: Toward a Radical Political Theology,” Clayton Crockett ed., *Religion and Violence in a Secular World: Toward a New Political Theology*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6), 192-193. 로빈스는 에크발 아흐마드(Eqbal Ahmad)를 인용하고 있다.

42) 위의 책, 201.

43) R. Scott Appleby, *The Ambivalence of the Sacred: Religion, Violence, and Reconciliation* (NY and London: Rowman & Littlefield, 2000), 7. 재인용은 다음과 같다. David C. Rapoport, “Comparing Militant Fundamentalist Movements and Groups,” in Marty and Appleby, eds., *Fundamentalisms and the State*, 429-61. 페르시아 걸프 전쟁에 대한 이슬람의 반응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다. James Piscatori, *Islamic Fundamentalisms and the Gulf Crisis* (Chicago: American Academy of Arts

애플비는 종교와 폭력의 관계, 특히 정치적 권력이나 목적과 결부될 때 나타나는 상황에 대하여, 종교는 항상 양면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양면적 태도는 폭력의 사용이 한편으로는 종교적 규범을 강화하고 자기를 방어할 수단이 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파괴의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다.”⁴⁴⁾ 그리고 “대부분 종교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폭력을 승화하고,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거룩한 순교자’를 영웅화시키는 것 사이의 깊은 긴장 관계가 있다.”⁴⁵⁾고 애플비는 설명한다. 만약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동기나 목적, 패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에 대한 잘못된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일반적인 행위와 종교인들의 행위를 구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⁴⁶⁾

애플비는 종교적 폭력이 정치적 수단 또는 정당화와 결부되는 이유가 종교는 그 자체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행위이자 태도, 신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특정한 종교를 정의하는 어떤 개념 또는 추상화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특정한 조건과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그러한 조건이나 맥락에 따른 다양한 동기가 혼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⁴⁷⁾ 따라서 어떠한 종교적 집단 행위나 인식이 종교 자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집단을 이끄는 지도력

and Sciences, 1991). 인용에 대한 각주는 312쪽에 있다. 애플비는 종교가 군사화되고 폭력화되는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면서, 종교가 일관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집단적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는 낙관적 관점을 비판한다.

44) 위의 책, 10-11.

45) 위의 책, 11.

46) 위의 책, 55.

47) 위의 책, 56.

이 어떠한 사회, 정치적 맥락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행위가 가능하며, 이러한 다양한 동기로 인해 폭력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애플비는 분석한다.⁴⁸⁾

넷째, 종교폭력의 이면에 종교와 ‘민족주의’의 결부가 폭력을 유발한다는 관점이 제기된다. 애플비에 따르면, 종교가 인종이라는 개념과 결부될 때, 즉 인종 간의 갈등이나 지배를 둘러싼 정치적 성격의 갈등으로 확장될 때, 종교적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종 또는 민족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는 민족성에 근거해서 특정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 구성체를 구성한다고 간주함으로써 타 인종과의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게 되기 때문이다.⁴⁹⁾ 이러한 민족성 개념에 종교가 결부되면, 자연스럽게 특정 민족은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타민족에 대한 우월한 민족성에 관한 생각이 강화되고, 여기에 종교적 색채를 강화함으로써 갈등과 폭력 자체를 상대화하여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⁵⁰⁾ 애플비는 종교와 민족성이 결부되어 정치적 또는 종교적 폭력을 일으키거나 정당화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종교가 정치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신성한 것으로 만들 때, 종족 민족주의재정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은 라이벌 관계인 상대 민족과의 폭력적 갈등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강력한 근거를 찾고자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 정체성에 있어서 믿고자 하는 것은 사실 실제 그러한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사실상 종교 그 자체는 ‘동족의 배타적으로 정의된

48) 위의 책, 56.

49) 위의 책, 58-59. 애플비의 이론적 배경으로 인용되는 사상가들은 Max Weber, Ernest Gellner, Gunnar P. Nielsson, E. J. Hobsbawm, Walker Connor, David Rapport 등이 있으며 별도의 재인용은 생략한다. 참고로 인용 출처는 같은 책, 322.

50) 위의 책, 60.

사회 집단'의 근거로서의 구실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 민족성이라는 개념은 보편 종교들로부터 특정 집단을 구분하면서 스스로를 결속시키는 힘 일지도 모른다.⁵¹⁾

애플비는 이러한 종교적 폭력을 민족 종교적 갈등 또는 폭력으로 정의 하면서, 종교를 표방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자신의 종교가 언제나 다른 종교와 구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차별성을 고수함으로써 타 종교, 특히 인종 개념과 결부하여 종교적 폭력을 정당화하게 된다고 설명한다.⁵²⁾ 그는 이러한 경향을 일종의 '종교적 문맹'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존재들이 어떤 행위에 대한 도덕적 성찰이나 신학적 지식이 모자람으로써 형성되는 종교적 문맹이 강한 사회일수록 집단적 폭력의 양상을 보이기 쉽다고 애플비는 분석한다.⁵³⁾ 따라서 애플비는 종교적 폭력에 결부된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동시에 종교적인 동기와 성격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어떠한 폭력적 행위가 거룩한 것으로 승화될 때에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본적인 종교적 특징, 특히 종교적 문맹의 성향이 강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한다.⁵⁴⁾

다섯째, 종교적 폭력의 경우 민족주의와 유사한 종교적 '근본주의'가 배경 설명이 될 수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평화의 정신을 왜곡하고 군사적 방식을 통하여 폭력을 용인하는 문제를 유발하는데, 애플비는 종교적 폭력이 정당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 그 자체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보편적인 합의나 가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51) 위의 책, 60. 이 내용을 애플비가 강조할 때 언급하는 사상가는 Weber와 Walker Connor이다. 같은 책 60.

52) 위의 책, 69.

53) 위의 책, 69.

54) 위의 책, 71.

다.⁵⁵⁾

애플비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극단주의를 구별하지만, 종교적 폭력이 정당화되는 주원인으로서 종교적 근본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종교적 종말론에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종교적 교리 자체가 평화와 관용을 추구하면서도 특정한 시점이나 조건에서는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⁵⁶⁾ 특정한 시점은 그 자체로 예외적이면서도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시점을 의미하는데, 애플비는 종교적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카리스마적이거나 독단적인 남성 지도자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며, 본래 소 종교적 성격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확산하는데, 다만 기본적인 정치 지도자와 달리,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 권력을 잡게 될 경우, 그러한 정치적 권력은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분열의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서 국가 또는 정권을 형성하기에는 다소 약한 지도력이라고 지적한다.⁵⁷⁾ 다음의 내용은 공적 영역에서 근본주의의 한계를 잘 지적하여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어떤 종교 전통도 민주주의나 인권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한다. 각 종교의 경전이나 성문서들은 권리나 자유보다는 계명과 의무를 훨씬 더 강조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각 종교의 고위성직자나 핵심 지침, 신학자들과 법학자들이 인권법 규정을 만들면서도 이것이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21세기 종교집단들의 강력한 권력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통해 민주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정주의가 이루어지기를

55) 위의 책, 141. 애플비는 이런 맥락에서 간디(Gandhi)의 비폭력 정신인 'satyagraha'를 소개한다. 같은 책, 141.

56) R. Scot Appleby, "The Theo-democratic Vision of Religious Fundamentalists," David Odell-Scott ed., *Democracy and Religion: Free Exercise and Diverse Visions* (Kent, Ohio: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2004), 13.

57) 위의 책, 13.

기대하고 있다.⁵⁸⁾

여섯째, 탈식민지화의 문제로 종교폭력을 분석하는 관점도 있다. 피터 반 더 비어(Peter van der Veer)는 인도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결부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적 폭력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인도는 이슬람교와 힌두교 사이의 갈등으로 종교폭력이 심화하였으며, 그러한 갈등은 곧 정치적 권력의 문제와 종교적 가치 사이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⁵⁹⁾ 반 더 비어는 인도 사회가 세속화되면서 ‘정의로운 국가’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고 그것이 종교와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 식민지 상태에서 정의라는 개념은 다분히 서구적 개념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나타내는 외래적 개념이었다고 그는 해석한다.⁶⁰⁾

따라서 이슬람교 관점에서의 탈식민지 정치적 저항은 그러한 서구적 개념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문제는 서구의 ‘정의(justice)’ 개념이 이슬람교 문화 안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비민주주의적 색채를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슬람교 문화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서구에 반대하는 종교적이며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과거로의 회귀를 지향하게 되었으며, 결국 근대적 민주주의와 반대가 되는 종교적 이념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그는 설명한다.⁶¹⁾ 한편, 힌두교도 공적 영역에서 분명한 가부장적 특징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서구의 인권 개념과 달리 힌두교 문화

58) 위의 책, 14.

59) Peter van der Veer, “Contesting Traditions: Religion and Violence in South Asia,” Monique Skidmore and Patricia Lawrence eds., *Women and the Contested State: Religion, Violence, and Agency in South and Southeast Asia*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7), 13-14, 17.

60) 위의 책, 15.

61) 위의 책, 15.

의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가 정치적 영역에서 남성 중심으로 재정립됨으로써 식민주의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채 여성은 언제나 열등한 존재로서, 폭력의 당연한 객체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피터 반더 비어는 설명한다.⁶²⁾

지금까지 필자는 종교폭력의 이면에 작동하는 정치적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세속화와 다원화에 따른 ‘종교의 권력화’, ‘정치적 소외에 따른 박탈감의 표현’, ‘군사화되는 종교’, ‘민족주의’, ‘근본주의’ 그리고 ‘탈식민지’의 내용에 대하여 서구학자들의 이론을 정리하여 보았다. 이제 다음에서 기독교 정치윤리의 관점에서 평화 공동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V. 결론: 종교폭력에 대한 정치 신학적 대안

지금까지 필자는 특정한 사회의 정치 경제의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종교폭력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클레이튼 크로켓(Clayton Crockett)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종교성과 세속성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종교와 정치는 모두 폭력을 조장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은 종교와 정치 모두가 지향하는 목적이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⁶³⁾ 그는 종교와 정치의 결합이 종교폭력으로 귀결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잠재적인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적인 협동 또한 가능하다고 제안한다.⁶⁴⁾ 그러나 크로켓은 근본적으로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62) 위의 책, 15.

63) Clayton Crockett, "Introduction," Clayton Crockett ed., *Religion and Violence in a Secular World: Toward a New Political Theology*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6), 12.

64) 위의 책, 13.

폭력의 야만성과 범속성을 깨닫고 기존의 권력 또는 주권 구조에 대한 해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서 ‘세속 신학(secular theology)’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신학은 물화(物化)된 정치적 영역에서 비물질적 신 명령의 가치를 구현하고 재해석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⁶⁵⁾ 이러한 관점은 다원화되어가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종교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론적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논문을 통하여 살펴본 종교와 폭력의 문제에 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적용하여 보도록 하겠다.

첫째,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물화(物化)된 경제의 영역에서 종교적 실천과 신학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한국 사회와 전세계 세속 영역에서 벌어지는 자본주의와 연관된 종교폭력에 대한 공적 책임에 관한 것이다. 다행인 것은 한국 사회에 종교 갈등으로 야기되는 폭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정치적 사안에 따라 종교 내외적인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⁶⁶⁾ 따라서 정교분리의 현 제도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사적인 영역에 비록 제한되어 있지만,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공공 여론의 확산을 통하여 기독교의 목소리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물화된 사회의 자본주의적 가치체계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비움’과 ‘나눔’의 정신은 자본주의가 양산하는 세속화와 세계화, 소외, 종교의 권력화에 대한 정신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지속 가능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를 위한 범 기독교적 공동체 이념을 통하여 한국 사회를 정화하여 나갈 수 있는 계기들이 끊임없이

65) 위의 책, 16.

66) 한국 사회 종교 간 갈등이 현상적으로 표면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남북통일 문제’나 ‘동성애 문제’, ‘이주 거주민의 종교’ 문제와 관련하여 극심한 남·남 갈등이 표출되며 최근 코로나의 방역체계를 놓고 기독교 보수 계통의 집회에 대한 여론이 분열된 것은 사실이다.

확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공적 영역에서 연대하여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앞의 논지와 역설적으로 종교적 권력화에 대한 탈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강조하는 ‘탈’의 의미는 정치와의 단절이 아니라 왜곡된 정치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종교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종교폭력의 이면에 ‘민족주의’, ‘종교의 군사화’ 그리고 ‘탈식민주의’에 대하여 앞에서 이론을 검토한 바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지난 100여 년 한반도에서 벌어진 정치적 요소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 예언자적인 종교의 모습도 있었지만, 식민지 권력의 내면화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미국이 군사적 종교의 이미지로 비치는 모습도 지나칠 수 없다. 주체성을 회복하여야 하는 탈식민지의 과제도 요원한 가운데 현 한국의 기독교는 좌우 이념 대결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종교의 문제로 야기되는 근본주의나 극단주의와 같은 분쟁의 모습은 표출되지 않지만, 근현대사의 질곡을 함께 극복하여야 할 교회 공동체의 정치적인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종교는 ‘탈정치화’를 통하여 기존 정치 체계의 모순을 지적하고 평화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종교가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가치를 초월하는 ‘종교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가 권력과 돈을 지향한다는 모습을 ‘탈’하고 세상을 변혁하는 예언자적인 모습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종교집단이나 서구식의 종교 클럽이 배타적으로 되면 폭력과 연관이 될 수 있다. 종교의 근본주의적 특성은 언제나 폭력으로 치우칠 수 있다.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철저하게 비폭력적이며 용서에 기반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종교 간의 끊임 없는 대화와

협동은 종교적 가치를 상대화하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면서 공적 영역에서 대화의 장을 형성함으로써 타 종교와 건강한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애플비도 강조하였듯이 종교적 문맹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신학적 지식과 도덕적 성찰이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종교 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종교집단의 지도력은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잘 통찰하고 종교 간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동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학은 평화의 인식과 실천을 위한 계몽적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평화학’을 위한 간학문적 소통의 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ppleby, R. Scot, *The Ambivalence of the Sacred: Religion, Violence, and Reconciliation* (NY and London: Rowman & Littlefield, 2000)
- _____. "The Theo-democratic Vision of Religious Fundamentalists," David Odell-Scott ed., *Democracy and Religion: Free Exercise and Diverse Visions* (Kent, Ohio: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2004)
- Arcamone, Dominic, *Religion and Violence: A Dialectical Engagement through the insights of Bernard Lonergan* (Eugene, Oregon: Pickwick, 2015)
- Berman, Eli, *Radical, Religious and Violent: The New Economics of Terrorism*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9)
- Brubaker, Rogers, "Religious Dimensions of Political Conflict and Violence." *Sociological Theory*, 33(1) (2015), 1-19.
- Crockett, Clayton, "Introduction," Clayton Crockett ed., *Religion and Violence in a Secular World: Toward a New Political Theology*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6)
- Goudzwaard, Bob, Vander Vennen, Mark and Van Heemst, David, *Hope in Troubled Times: A New Vision for Confronting Global Crisi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7)
- Hogan, Linda, "Introduction: Between Legitimation and Refusal: Jewish, Christian, and Islamic Responses to Political Violence," Linda Hogan and Dylan L. Lehrke, eds., *Religion and The Politics of Peace and Conflict* (Eugene, Oregon: Pickwick, 2009)
- Juergensmeyer, Mark, "Religious War, Terrorism, and Peace," Gerrie Ter Haar and Yoshio Tsuruoka eds., *Religion and Society: An Agenda for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Studies in Religion and Society Vol. 5* (Leiden and Boston, Brill, 2007)
- Kelsay, John, "Why Should You Not Fight?: The Imperative of War in Islam and Christianity," Linda Hogan and Dylan L. Lehrke, eds., *Religion and The Politics of Peace and Conflict* (Eugene, Oregon: Pickwick, 2009)
- Lincoln, Bruce, *Holy Terrors: Thinking about Religion after September 11*

-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 Martin, David, *The Future of Christianity: Reflections on Violence and Democracy, Religion and Secularization* (Burlington, VA: Ashgate, 2011)
- Pennington, Brian K., "Introduction," Brian K. Pennington ed., *Teaching Religion and Violence* (Oxford and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Peter van der Veer, "Contesting Traditions: Religion and Violence in South Asia," Monique Skidmore and Patricia Lawrence eds., *Women and the Contested State: Religion, Violence, and Agency in South and Southeast Asia*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7)
- Peters, Rebecca Todd, "Conflict and Solidarity Ethics: Difficult Conversations on Economics, Religion, and Culture," Laurie Cassidy and Maureen H. O'Connell eds., *Religion, Economics and Culture in Conflict and Conversation* (NY: Orbis Books, 2011)
- Robbins, Jeffrey W., "Terror and the Postmodern Condition: Toward a Radical Political Theology," Clayton Crockett ed., *Religion and Violence in a Secular World: Toward a New Political Theology*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6)
- Selengut, Charles, *Sacred Fury: Understanding Religious Violence*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7, 3rd Edition)
- Skidmore, Monique, "Introduction: Religion and Women in Peace and Conflict Studies," Monique Skidmore and Patricia Lawrence eds., *Women and the Contested State: Religion, Violence, and Agency in South and Southeast Asia*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7)
- Straubhaar, Thomas, "An Economic Analysis of Religion and Religious Violence," *Transatlantic Academy* (June 2015), 1-7.
- Witte, Bernd, "Politics, Economics, and Religion in Global Age: Walter Benjamin's Critique of Violence and Capitalism as Religion," *Symposium: A Quarterly Journal in Modern Literatures*. 65(1) (2011), 5-15.

논문투고일: 2020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20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8일

• 국 문 초 록 •

평화를 상징하는 종교가 폭력과 연관되어 세계 곳곳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표출되는 종교 행위가 폭력과 연관이 될 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지만, 필자는 이 논문에서 ‘정치와 경제적 요소’와 연관된 ‘종교폭력’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서구의 세계화의 흐름에서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에 대한 저항은 종교폭력의 경제적인 요인이며 그리고 세속화의 과정에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결합은 종교폭력의 정치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종교폭력의 정의(definition)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종교적 신념과 정치 경제적 요소들이 어떻게 종교폭력과 연관이 되는지 서구학자들의 이론을 검토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한 공동체 윤리의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언을 하도록 하겠다. 국내 학계에 ‘종교폭력’과 관련하여 논문들이 있으나 주로 종교별 평화개념에 제한되어 있어 정치 경제와 같은 보다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하여 종교폭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의 한계는 주로 영어권 서구학자들의 분석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문헌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적 요인과 연관된 종교 갈등의 소지를 염두에 둘 때 예비적인 연구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종교폭력, 종교의 군사화, 세속화, 종교 권력, 평화 윤리
